

‘비은행’ 품고, ‘디지털’ 키우고… 보험사, 빅딜로 한계 돌파

교보생명, 저축은행 1위 SBI 인수
비은행 확장… 지주사 전환 시동

한화손보, 캐롯손보 흡수합병 수순
디지털 채널 강화로 다양성 확보

교보생명이 SBI저축은행 인수하고 한화손해보험이 캐롯손해보험을 흡수 합병하면서 보험업계에 지각변동이 일고 있다. ‘비은행 확대’와 ‘디지털 내재화’를 통해 대형 보험사를 중심으로 성장 한계를 돌파하려는 모양새다.

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교보생명은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고 SBI저축은행을 인수한다고 발표했다. 인수금액은 약 9000억원 수준으로 지분 50%+1주를 오는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한다.

이번 교보생명의 SBI저축은행 인수는 금융지주 체제 전환을 위한 비은행 부문 확장 전략의 일환이다. SBI저축은행은 2024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14조 289억원, 자본총계 1조8995억원, 거래



교보생명 사옥



한화손해보험 사옥

고객 172만명을 보유한 업계 1위 저축은행이다. 교보생명은 저축은행업계 1위 SBI저축은행 인수를 통해 보험·증권 중심의 현재 수익구조에 대한 다변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특히 교보생명은 지난 3월 어피니티와 7년간 이어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분쟁이 마무리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가속이 붙었다. 이번 저축은행 인수뿐만 아니라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로

그룹 전체의 수익 기반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저축은행업 진출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며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으로의 영역 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디지털 보험사인 자

회사 캐롯손해보험을 흡수합병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한화손보는 최근 캐롯손보의 주식 2586만484주를 약 2056억원에 추가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주식 취득 후 한화손보의 캐롯손보 지분율은 98.3%로 상승한다. 추후 1.7%의 나머지 지분도 매입해 내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캐롯손보 합병 절차를 마무리한다.

한화손보의 캐롯손보 지분 인수는 흡수합병 과정의 일환이다. 캐롯손보가 출범 이후 6년여간 줄곧 적자를 이어오면서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선택이란 분석이다.

캐롯손보는 국내 최초 디지털 특화손보사다. 그동안 주행거리 기반 자동차보험인 ‘퍼마일’ 등 차별화된 상품으로 입지를 넓혀왔다. 다만 캐롯손보는 2022년 영업손실 832억원, 2023년 748억원, 지난해엔 658억원을 기록하면서 지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화손보는 이번 합병을 통해 디지털 채널 경쟁력을 강화한다. 모바일·비대면 채널 중심으로 성장해온 캐롯손보의 시스템을 흡수해 한화손보의 전체 디지

털 역량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화손보 관계자는 “디지털채널 확보를 통해 채널의 다양성 확보, 라인업 확장, 채널간 교차매매(Cross Selling)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손익은 이미 연결기준으로 반영돼 있고 연결기준 손익은 오히려 개선될 전망으로 합병 이후 재무건전성 이슈는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두 건의 대형 인수 합병이 보험시장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교보생명이 비은행 수익원을 확보할 경우 향후 금융지주 체제 전환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화손보 역시 디지털 전략을 내재화함으로써 장기적인 생존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교보생명의 저축은행 인수는 이후 금융지주사 전환을 위한 교두보가 될 수 있다”며 “방카슈랑스에서도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폴란드서 中企 ‘물 사업’ 확대 지원”

정진완 우리은행장, ADB 총회 참석
동유럽 K-금융 선드브랜드 자리매김

“수로와 댐, 산업용수, 식음료 모두 물을 통해 만들어진 사업이다. 폴란드에도 이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해 나가겠다.”

정진완 우리은행장은 지난 4일(현지 시각)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동행기자단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2017년 유럽지역의 전략적 거점을 확대하기 위해 폴란드 카토비체에 사무소를 개설했다. 8년 만에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서 우리나라의 제조업과 중견기업의 금융지원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정 행장은 “수자원공사의 경우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어, 입찰을 하게 되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수많은 중소기업이 진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참석차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정진완 우리은행장이 간담회를 하고 있다.

/한국은행

출할 수 있는 만큼 중기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폴란드는 동유럽과 서유럽을 연결하는 지정학적 요충지로, 제조업과 중견기업의 동유럽 진출 확대가 맞물려 금융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수도인 바르샤바는 한화에어로스페

이스, 현대로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국내 대표 방산기업들을 비롯해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기아차 등 다수 현지 법인들이 진출한 상태다.

우리은행은 이번 폴란드 지점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에도 참여할 계획이다.

정 행장은 “우크라이나 국경 뒤에 바로 폴란드가 있다”며 “전쟁 이후 주택과 산업공단을 재건하기 위해선 물이 우선 필요하기 때문에 수자원 공사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체코,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에 진출한 한국 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정 행장은 “무엇보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사업에 대한 지원은 제조업 등 기간산업을 지원하는 것과 다르다”며 “앞으로 꾸준한 지원을 통해 동유럽 금융시장 내 ‘K-금융’의 선드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밀라노(이탈리아)=나유리 기자 yul115@

보험사, 작년 해외점포 순익 ‘흑자전환’… 대형사고 기저 효과

해외점포 당기순익 1억5910만 달러
아시아 1.1억 달러, 美 3450만 달러

지난해 보험사의 해외점포 실적이 흑자전환했다. 금융투자에서 수익이 줄었지만 보험영업 확대와 전년도 대형사고 기저효과가 실적을 끌어 올렸다.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4년 보험회사 해외점포 영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 해외점포 당기순이익은 1억5910만달러(217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전년 1430만달러 적자에서 1억7340만달러 증가해 흑자전환했다.

지난해 말 기준 11개 보험사(생명보험 4곳, 손해보험 7곳)는 44개의 해외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DB손해보험이 베트남 해외 손보사 지분을 신규 취득하면서 해외점포는 전년대비 2개 증가했다.

생보사의 순익은 6400만달러를 기록해 보험영업 확대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220만달러(3.5%) 증가했다. 손보사는 9510만달러로 전년 대비 1억7120만달러 급증했다. 지난해 괄 태풍 ‘파와르’·하와이 마우이 산불 피해금 지급이 반영됐던 탓에 기저효과가 컸다.

업종별로는 보험업에서 1억5070만달러 이익을 거뒀고 금융투자업 등에선 순익 84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아시아 1억1510만달러 ▲미국 3450만달러 ▲유럽 950만달러 순이었다.

금융원은 “생보사 실적은 진출 초기 손실 및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보험영업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개선됐다”며 “손보사는 전년도에 발생한 대형사고 기저효과로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트럼프 ‘통화절상 압박설’… 원화 초강세

美·대만 협상 후 대만달러 9% 급등
원화값도 계엄사태 이후 최고 수준

원·달러 환율이 급락(원화값 상승)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일본·대만 등 우호적인 무역국에 ‘통화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해서다. 지난 1일 미·대만의 무역 협상 직후 달러(USD) 대비 대만 달러(TWD) 가치가 급등(대만 달러 가격 상승)한 가운데 원화 가치도 지난해 12월 계엄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7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398.0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종가)를 마쳤다. 전 거래일(5월 2일) 주간 종가와 비교해 7.3원(0.52%) 내렸다. 이는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 이후 최저치로, 달러가 1471.9원을 기록했던 지난달 초와 비교해서는 73.9원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해 한국·일본·대만 등 우호적인 무역국에 ‘통화 절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확산해서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과 대만은 1차 무역 협상을 진행했다. 상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이 대만에 통화 절상(달러 대비 통화 가치 상승)을 요구했다는 의혹이 제시되며 대만 달러가 빠르게 상승했다. 환율 급등에도 대만 외환 당국이 개입하지 않자 의혹은 확산했고, 달러화 대비 대만 달러 가치는 직후 2거래일 만에 약 9%나 급등했다.

환율이 과도하게 급등하자 양진룡 대만중앙은행 총재가 지난 5일 “환율은 미국과의 무역 협상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라며 환율 개입 가능성에 선을 그었지만, 대만 달러 선호 현상은 원화·엔화 등 타국 통화 선호로 확산했다. 이날 오



7일 서울 중구 명동의 환전소에 달러 환율이 표시되어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증가(1405.3원)보다 25.3원 내린 1380.0원에 출발했다. /뉴시스

후 달러 대비 원화 가격(장외거래)은 지난 1일과 비교해 약 4.2% 상승했고, 달러 대비 엔화 가격도 1.2% 상승했다.

대만 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통화의 강세가 지속되는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무역국의 ‘통화 약세’를 무역 적자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하락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보는 한편, 단기적으로는 조정 구간에 돌입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주원 대신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도 대만 못지않게 대미 경수수지 흑자 수해를 누려온 만큼, 트럼프의 타킷이 될 수 있다는 우려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대만 달러 환율 변동이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도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업 및 기관들의 달러 투매가 나올 수 있어, 환율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면서 “FOMC 결과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유입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환율이 당장 추세적인 급락을 지속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속도 조절이 나타날 여지가 커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